

# “불교, 실크로드 순환로 따라 해상 전파”

### 실크로드 순환로 연구 중인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 주장

국제적인 학술대회에서 통설로 자리한 불교의 육로 전파 보다 해상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불교학자인 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버클리에 명예교수는 10월 29일 호 텔현대 경주에서 열린 ‘실크로드 위의 인문학, 어제와 오늘’ 국제인문·문화축제에서 “불교가 해상을 통해 주로 전래했으며 현재 실크로드의 이미지는 상당부분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실크로드와 불경의 전파 - 해초의 구법여행과 대순환로’ 주제 발표에서 “해초 스님이 인도와 중국을 여행한 기록을 보면 해상로를 따라 인도로 갔다가 내륙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다”며 “실크로드는 비단길과 해양로를 함께 묶어 동과 서를 잇는 유라시아의 ‘대순환로’였다”고 지적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해초 스님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 한국에서 해양불교가 알려지지 않았다”며 “당시 남중국에서는 해로를 통해 불교와 같은 새로운 문화와 문물이 다양하게 유입됐다”고 말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달마 대사 또한 전승 경로가 바닷길을 통했다”며 “달마대사는 카슈미르 태생이지만 중국 남단의 광저우(廣州)를 통해 맨 처음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고 소개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이러한 남중국의 불교는 한국과 일본과 교류하는 이들을 통해 다

시 전파됐다”며 “당시 국제 교역은 ‘해상’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며 “실크로드의 사실상 주거래 품목인 향료만 하더라도 육로 수송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불교 또한 육로와 해로 중 해로의 비중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불교의 해상을 통한 유입으로 인한 변화의 예로 관음보살상의 여성상화와 비구니 교단의 동아시아 전파 등을 들었다.

랭카스터 교수는 “당시 광저우행 상선을 통해 불교가 유입됐는데 특히 비구니 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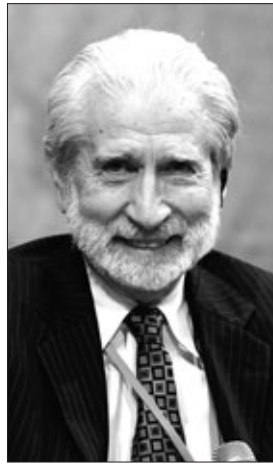
### 해초·달마도 바닷길 이용해

### 광저우 비구니교단 등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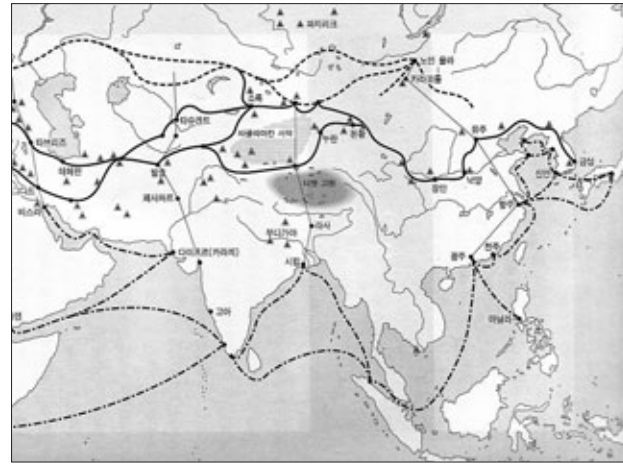
### 관음보살 여성화 등에 영향

이 시작된 사건이 있다. 중국에서 비구니 서품식에 필요한 10명 비구니 중 1명이 모자라자 해상 무역상을 스리랑카로 파견했으며 그가 광저우로 비구니 스님을 모셔와 교단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랭카스터 교수는 “성별이 없는 관음보살을 뱃사람들이 바다의 모신으로 인식하며 여성화가 진행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랭카스터 교수는 스리랑카 항구들에서 바다를 접한 관음보살상들이 발견되고 있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좌)는 신라 경주가 실크로드 순환로 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음도 밝혔다. 랭카스터 교수는 불교전래 연구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연안경로를 밝히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현재 UC버클리에 ‘전자문화지도’(ECAI) 중 ‘해상불교지도’(Atlas of Maritime Buddhis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며 실크로드 기점으로 경주를 재조명하려는 한국학계에도 긍정적인 말을 꺼냈다.

랭카스터 교수는 “실크로드는 대순환로 이기에 순환로 상 어느 곳이나 기점이 된다”며 “하지만 이 대순환로의 중요한 일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교미술학 차원에서 분석한 임영에 교수(경주대, 중앙아시아학회)는 “실크로드 미술에서 간다라미술이 서에서 동으로 유입된 것만이 아니라 동에서 서로의 유입도 있어 상호교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실크로드의 중앙아시아는 단순 통과지가 아니라 독특한 양식의 생산지라는 새 개념을 말했다.

임 교수는 “통일신라에서 유행한 중앙아시아 불교 조각은 특유의 비사실적인 옷 주름이 형성되면서 과장된 신체표현과 밀착된 옷 및 독특한 양각주름 등을 지닌 특징을 보인다”며 “두꺼워진 허벅지와 U자형 옷 주름은 감산사 신라 아미타불입장에서 나타난 중앙아시아 불교 미술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문·문화축제에서는 린 메이춘 중국 베이징대 교수가 ‘실크로드와 중국’, 일베 오르타일리 터키 갈라타사라 이데 교수가 ‘실크로드와 터키’, 최광식 고려대 교수가 ‘실크로드와 한국’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굴산산문터에서 통일신라 탐 부재 추가 확인

### 중원문화재연구소, 10월 29일 현장설명회 개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는 10월 29일 강릉 굴산사지(山寺址, 사적 제448호) 발굴조사 현장에서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3년도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했다.

신라 하대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굴산문(山門)의 본산인 굴산사는 강릉단오제(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주신(主神)인 범일국사가 신라 문성왕 13년(851)에 창건한 영동지역 선종의 중심 사찰이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2013년 발굴 조사를 실시해 조사구역 내에서 총 10기의 건물지와 담장지, 계단 등 다양한 유구를 확인했다. 굴산사지는 건물지가 모두 인접해 배치돼 있었으며 스님들이 생활한 승방지(僧房址) 등이 발견돼 당시 가람 형태를 알 수 있다.



굴산사지 전경

특히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승탑(僧塔) 부재(部材)가 추가로 확인돼 주목된다. 현재 굴산사지에는 범일국사의 것으로 알려진 강릉 굴산사지 승탑(보물 제85호) 1기만이 존재했다. 이번 조사에서 승탑 부재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굴산사에는 최소 2기 이상의 승탑이 존재했음이 확인됐다.

노덕현 기자

## 문화재청, 라오스 불교유적 복원 착수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10월 29일 라오스 팍에서 라오스 참파삭 문화경관 내 흥남사다 사원 유적에 대한 복원공사를 착수했다.

문화재청은 라오스 측과 지난 3월 ‘한-라오스 문화유산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11세기에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참파삭 흥남사다 사원은 200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참파삭 문화 경관 내 왓푸사원과 고대주거지’에 있다. 흥남사다는 캄보디아 앙코르유적으로 연결되는 고대길 중 있는 성지다.

문화재청은 “착수식을 시작으로 라오스 정보문화유산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파삭 문화경관 내 세계유산의 보존복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비롯해 무형·기록유산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착수식에는 박영대 문화재청 차장을 비롯한 문화재청 관계자와 사업시행주체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김종진) 관계자, 라오스 참파삭주 부지사, 라오스 문화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밀교의 수행법과 무드라’ 조명

‘밀교의 수행법과 무드라’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와 전시회가 11월 22일 오전 10시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당 정사)에서 열린다.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당 정사)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티베트 계시조상 스님의 비밀도차제본 무드라 시연에 이어 △진각종 수행의 형성과 체계(시복심인당 주교 법경 정사) △미국불교의 현황을 통한 진

각밀교의 미래 방향성 고찰(안산심인당 주교 보성 정사) △‘금강경’에서 수행의 소연경에 대하여(진각대학원 김치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되고 논평이 이루어진다.

한편 11월 22~26일 5일간 한국불상의 수인 등 최승규 한국현대불교미술협회 이사장의 작품이 선보인다.

김주현 기자

## 문빈정사 불교의례집 광주 문화재로

문빈정사(주지 법선)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이 11월 1일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 됐다. 현재 문빈정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11종으로 이 중 12책은 대부분 임진왜란 전에 간인된 판본으로 밝혀졌다. 문화재 11종은 간행지와 간행연도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고, 대부분 책판을 판각한 이후 곧바로 찍어낸 초간본이다.

특히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계(法界聖凡水陸勝會修羅儀軌)’는 불교의 야외 법회의식 중 하나인 수륙재(水陸齋) 때 행하는 여러 의식절차를 정리한 책이다. 향후 문빈정사 소장 전적은 예고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노덕현 기자

## “불교명상과 접목한 심리 상담 개발해야”

### 박찬욱 밝은사람들 연구소장 ‘불교와 상담’ 제2회 학술세미나에서 관심 촉구

서양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활용되고 있는 불교 명상과 상담에 대한 현장의 실질적인 논의가 눈길을 끈다. 동방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10월 29일 ‘불교와 상담’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동국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상담을 교육하고 있는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동국대 겸임교수·사진)이 ‘불교상담, 그 필요성과 적용 영역’을 통해 불교계의 불교상담 기법 개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박찬욱 연구소장은 “불교 명상은 현대 서구사회의 심리치료를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불교 명상의 심리치료 활용 현황을 소개했다. 박 연구소장은 “레이비드 브레지어 같은 사람은 아예 불교명상을 주축으로 삼고, 심리치료가 보조적인 개념으로 활용되

는 소위 선(禪) 치료라는 것도 소개하고 있다”며 “대부분 명상만으로는 마음 치유의 한계를 알아, 상담치료가 병행돼야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연구소장은 “산사에서 명상과 함께 하는 집단상담이 신체적인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는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을 키우으로써 다양한 심리증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집단행동을 통해 현재의 당면과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 연구소장은 현재 불교계가 불교교과와 수행을 현대 상담심리학 등과 접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소장은 “현대에는 전문 분야 간 교류가 활발한 시대”라며 “불교 또한 현대인의 상황과 취향에 맞춰 관련 전문분야 지

비교해 마음챙김과 암에 대한 수용행동, 집착 수준에서 유의한 증진효과를 보였고 이러한 점이 프로그램 종료 후 4주가 지난 시점에도 유지됨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연구소장은 “산사에서 명상과 함께 하는 집단상담이 신체적인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는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을 키우으로써 다양한 심리증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집단행동을 통해 현재의 당면과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 연구소장은 현재 불교계가 불교교과와 수행을 현대 상담심리학 등과 접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소장은 “현대에는 전문 분야 간 교류가 활발한 시대”라며 “불교 또한 현대인의 상황과 취향에 맞춰 관련 전문분야 지



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소장은 “현재 심리학자와 불교학자들은 불교심리·상담을 접함에 있어 심리치료와 종교에 치우쳤다는 양극단 견해를 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심리치료의 한 형태라는 중도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불교가 하나의 심리치료로서 현대 사회에 소개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정미숙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아유르베다상담과 불교상담의 상관성 연구’, 신승철 前연세대 의대교수의 ‘불교 상담치료에서 치료사의 자세’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승가교육원 제2기 교육생 대모집

###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한국불교 승가교육원은 한국불교전통을 자랑하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분원으로서 불제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삭발염의한자나 승려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체계적인 재반의식 및 수행법등을 보수, 교육, 하고자 범 중단을 초월한 한국불교 최초의 종합불교예술 승가교육원입니다. 최고의 교수진 구성으로 알찬 승가 재반 의식교육과 승려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코자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 교육내용

구분	강의내용	요일	기간	시간	모집인원
기초학과 12주	• 승가기본예절 • 조석예경면(사참), 불공편, 요령묵탁법 • 천수경강의 • 불공편 • 관음시식 • 발우공양작법	목	3개월	2시~5시	00명
수계 및 수료	• 사미들의 • 자비도량참법 • 초발심자경문 • 수계 및 수료식(수계증 및 수료증 수여)		2박 3일		
범음법패반	• 예경면(사참), 각단불공편, 권공편, 영반사시편, 점안편, 대령, 관육편, 배송편, 법패기능연마, 사물타법, 수행경문	화	6개월	2시~5시	00명
작법 무반	•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목	6개월	2시~5시	00명

■ 개원 일시 : 불기 2557년 11월 7일 (목) 오후 2시부터

■ 회향 기도 : 마지막 회향시 수계 및 수료법회 봉행

■ 준비물 : 반명함판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1통, 가사, 장삼, 요령, 묵탁, 필기구 (가사 및 장삼 미소지자는 별도 합동 주문제작)

※ 기타 자세한 내용문의는 본원 교학처로 문의 바랍니다.

■ 교육 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한국불교 승가교육원

■ 접수연락처(교학처) : 051)327-5096 /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영남불교예술대학 한국불교승가교육원

부산영산재 보존회

## 제5회 원효학술상(元曉學術賞)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철학, 한국철학 속의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한국철학이 국제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효학술상 공모를 실시합니다. [상세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l.org) 및 월간 ‘불교문화’의 공모 내용을 일러 참조 바람.]

- 공모 주제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상기 부문 중 자유선택, 1인 1편 응모)
- 시상 부문 및 상금
  -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 1,000만원 혹은 논문상 : 700만원
  - 박사과정 후 비(非)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 500만원
  - 석·박사과정 학생 3인 이내 : 금상(300만원), 은상(250만원), 동상(200만원) (모든 부문 공통 : 국내 및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 영어에 한함)
- 제출 자료
  - 1) 지원서 1부(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l.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2) 저서 2부, 논문(발췌본) 3부
    - ①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전임강사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 ② 심사 대상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함(저서는 ISBN 등록본).
    - ③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여,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수
  - 1) 접수 기간 : 2014년 1월 2일(목) ~ 2014년 2월 28일(금)까지
  - 2)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차 소인 유료)
  - 3) 접수처 : 주소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 (02) 719-2606

•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해주십시오(kbpl@chol.com).

  -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 2014년 4월 중(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 2) 시상식 : 2014년 4월 중(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